신행 단신

불교상담개발원, 관계 깨우는 의사소통

10월 16~18일 목동 국제선센터서,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불교와 심리를 활용한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이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16~18일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교육인 '나와 너, 관계를 깨우는 의사소통' 을 개최한다.

스님과 재가불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정신과 전문의 최훈동 박사 겸임교수가 강사로 불교의 연기법과 심리학의 정신분석을 접목한 이론 ·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수업을 통해 고통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심리적으로 짚어보고 그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면 심층의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관계에 관한 연기적 법칙을 명상을 통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계 자체도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가운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생 상호간 실제 훈련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강사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불교와 상담을 일상용어로 풀이해 명상지도자로서 매순간 교육생과 소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차이와 경계 넘어서는 지혜' 주제 강연

조성택 교수, 10월 7일 오후 7시 고려대서

원효 대사의 '화쟁(和諍)' 사상으로 현대사회의 치유를 모색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재)플라톤 아카데미는 10월 7일 저녁 7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를 초청해 '차이와 경계를 넘어서는 지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 조성택 교수는 갈등과 불통의 상태에 있는 현대 사회를 직시하고 원효의 '화쟁' 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갈등의 새로운 인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화' 와 '경청'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좌는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강좌는 SBSCNBC로 방송될 예정이다.

플라톤 아카데미는 "이번 강좌는 (재)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인문학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 '어떻게 살 것인가?' ,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에 대해 우리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학문의 틀에 갇힌 인문학을 일상으로 불러내어 해답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자리"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3771-5885

이나은 기자

국제선센터, 생전예수재 · 선지식 법회

지현 · 법산 · 지안 · 용타 · 해남 · 암도 스님 법문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이하 국제선센터)는 9월 윤달을 맞아 업장소멸과 무량공덕을 쌓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한다.

국제선센터는 예수재 기간 동안 7인의 선지식 큰스님들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한다. 9월 29일 기도입재를 시작으로 10월 5일 초재에는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을 초청해 법회를 개최한 국제선센터는 △10월 12일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10월 19일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10월 26일 지안 스님(고시위원장) △11월 2일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11월 9일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 △11월 16일 암도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의 초청법문을 열 계획이다. 또한 11월 9일에는 보살계수계식을, 16일에는 개원 4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윤달이 되면 봉행했던 생전예수재 기도를 통해 살아 있을 때 미리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 복덕을 구족하고, 참회로써 업장소멸하여 극락왕생을 발원하게 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650-2200 이나은 기자

포교사단, 팔재계 수계실천 결의다져

조계사서 9월 27~28일
포교사 품수식 및 대법회 봉행

포교사단(단장 곽명희)은 9월 27~28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전계사로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 를 거행했다.

전국 5천여 포교사 조계사 집결
860여 신규 포교사도 참여
부처님 출가 정신 되새기며
전법의지 다지고 실천 다짐

"신 · 구 · 의 삼업으로 인한 업을 모두 참회하오니 모든 허물 사라져서 몸과 마음 건강하고 위험원수 사라지고 선업의 이익 나타나소서. 스님들이시여.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삼귀의와 여덟 가지 계를 받기를 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계를 설해주십시오."

포교사들이 지계를 점검하고 전법의지를 다지고자 오계(五戒)와 오후불식과 향락과 몸 꾸미지 않기,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기 등의 세 가지를 더한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가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포교사단(단장 곽명희)은 9월 27~28일 서울 조계사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전계사로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 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및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을 비롯해 서울 · 인천 · 울산 · 경남 · 충북 · 광주 등 10여개 지역의 4천여 포교사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최종합격한 일반 포교사 750여명과 전문 포교사 79명, 국제 포교사 28명 등 최근 포교사 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도 열렸다.

행사 첫날에는 오후 5시 대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입재식 △제8기 전문포교사 및 19기 신규포교사 품수식 △붓다로살자 동참선언 △8재계 수계식이 거행됐다. 둘째 날에는 촛불철야정진을 비롯해 새벽예불과 보살계 수계식이 이어졌다.

곽명희 포교사단장은 인사말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종단의 커다란 인적자원"이라며 "사찰과 지역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훌륭한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 계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귀한 가르침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시민의식 실천운동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지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급변하는 포교환경과 많은 포교손길을 요구하는 포교현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포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팔재계 수계산림을 통해 포교사 스스로 포교능력을 향상하고 서로 격려하며 전법의 길로 다함께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사들이 하룻밤을 금식하면서 철야정진 팔재계 수행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분들이야말로 한국불교의 버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 성원을 보낸다. 2003년부터 시작된 지계실천운동이 벌써 12년이 되었다니 이제는 포교사만의 행사가 아닌 범 재가불자의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포교사는 앞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이다. 스님과 신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불법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여 이 사바세계가 정법으로 바로 서고 성실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모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포교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불법 홍포에 앞장서온 포교사와 포교팀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총무원장상에는 개인부문에 정영균 포교사(광주전남)가, 단체부문에는 인천경기 호스피스 팀이 수상했다. 이밖에 60여 개인과 단체가 포교원장과 총재상, 단장상 및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신규포교사 품수식에서는 제19회 일반포교사와 제8회 전문포교사가 포교사의 다짐과 전문포교사결의문을 낭독하며 전법의지를 다졌다.

이어서 전국 포교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출가 정신을 따르기 위해 불살생과 불음 등 여덟 가지 계율을 받은 포교사들은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조계사 일주문에서 시작해 청계천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시간 동안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발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무의식 체험으로 참 나 발견하자"

동국대 C.M.L 연구소, 창의 인성리더십 교육 진행

동국대 C.M.L 연구소(소장 김애주)와 중앙대 의과대학(학장 홍창권)이 공동주관한 대학생 창의 인성리더십 교육 C.M.L.P (Creative Mindful Leadership Program)가 시즌2.5로 돌아왔다.

프로그램은 10월 30일~12월 1일 매주 월 · 목 오후 7시 10회로 진행되며 창의적 영감을 꿈꾸는 대학(원)생 들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삼성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된 C.M.L.P는 201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성 3.0 대형사업에 선정돼, '무의식' 이라는 차별화된 소재를 교육에 접목시킨 교육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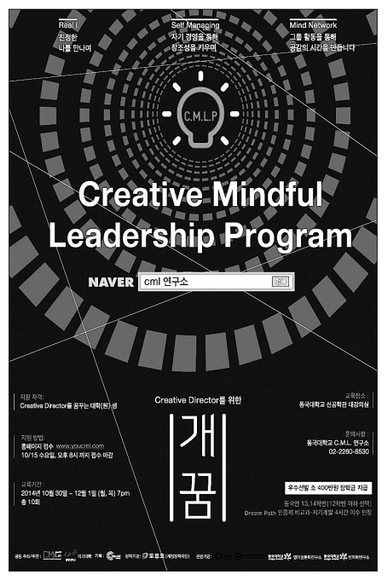
교육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창조 전문가(Creative Director)를 양성하기 위해, '무의식과 창조의 연관성' '무의식 영역' 의 실제 체험 '무의식 에너지 생활 속 활용' 이라는 차별화 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 분야의 다양한 연사들의 체험 강연도 함께 된다.

10월 30일 김애주 동국대 교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황수경 동국대 교수의 '마인드 에너지' △정효진 동국대 교수의 '프로젝트 미션' △김홍근 책임연구원의 '누가 창조하는가(Who creates)' △수불 스님의 'Who am I'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11월 14~16일 2박 3일 무의식 체험도 진행된다.

C.M.L 연구소는 "모든 창조는 인간의 내면 속 깊은 무의식에서 시작된다. '창조경제' , '창조융합' 등 창조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화두이지만, 정작 어떠한 방법을 통해 창조를 실현시킬지에 대한 근본적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며 "이번 과정은 틀에 박힌 강연이 아닌, 사고의 원리를 실제 '습득' 하고 사물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직관' 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 시키는 마음경영"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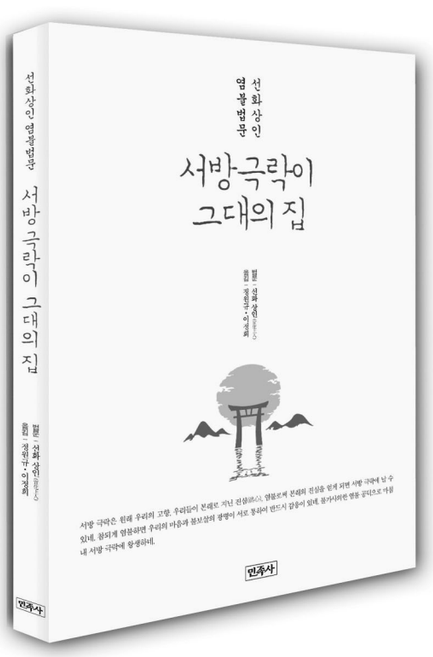
이번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계림장학재단에서 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youcml.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260-8530

이나은 기자



괴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 염불 수행

근 · 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한 분으로 추앙 받는 선화(宣化) 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



선화 상인 염불 법문

서방극락이 그대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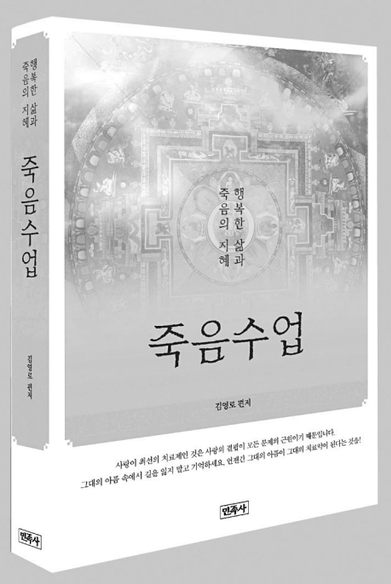
■ 정원규 · 이정희 옮김 | 변형 신국판 288쪽 | 12,800원

경전과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염불 법문의 정수를 콕 집어 설한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염불이 삶과 죽음의 고통바다를 건너는 이치임을 깨닫게 합니다.
참되게 염불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보살이 감응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來生)이 먼저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뼈저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48쪽 | 15,000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